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축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항공우주·방위산업 관계자와 기업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년 전보다 행사 규모도 커지고 전시되는 장비와 제품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방위산업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5억 달러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고, 연말까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수출이 1억 4천만 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KT-1 기본훈련기와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첫 선을 보인 차기전차를 비롯해 보병전투장갑차와 수상함정도 많은 나라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T-50 항공기는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통해 그 우수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세계 최고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목표로 할 만큼 성능과 가격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으로 만든 아리랑 2호가 지구상을 돌며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나로도 우주센터 건립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통해 과학기술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항공우주·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밤낮 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참여정부는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방연구개발비를 2002년 7천억 원에서 올해 1조 2천억 원으로 80% 가까이 늘렸습니다.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산·학·연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을 신설해 국방획득체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기본계획을 만들고, 러시아 등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 지원과 공동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서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발전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첨단무기체계의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세계 10대 방산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빈손으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일궈 낸 저력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첨단 IT 인프라가 성공을 이끄는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한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뜻 깊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